'강남구청 인강'과 함께하는 **논술 완전정복**

② 건국대 기출문제 분석

문제에 빠지지말고 발상의 전환 시도해라

논술평가에서 가장 중요하며 일차적인 작업은 '구성'이다. 그중에서도 논지의 방향을 일정하게 유형화하는 구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논술강의는 집필보다 개요 작성을 비중 있게 강의한다.

2009년 건국대학교 수시논술에서 제시문의 내용이 쉽고 어려운 것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도표나 소설작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시문은 통합교과형 논술을 지향한다. 이러한 통합교과형 논술에서 특히 중시되는 것이 바로 구성력이다. 때문에 논제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다루지 말고, 각각의 논제를 연결하는 일정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이 논술은 3개 논제로 구성된다. 이들의 연결은 A유형 [관점설정→근거마련→현실적용]의 3단 구성을 이루든가, B유형 [대립적 관점→관점선택과 근거→논박→반대관점의 유용성 및 결론]의 4단 구성을 이룰 수 있다.

A유형에서 <논제1>은 미래를 예측하는 행위를 '가능하다'(가)와 '불가능하다'(나)로 나누고, <논제2>에서는 (나)의 입장에서 (다)를 제시하면서 미래 예측이 불가능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것을 (라)에 적용하여 근거를 확실히 한다. 즉, 미래예측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용성도 없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마)의 그래프 분석을 통해 관점을 확장해 재증명한다. 실업률의 예상치와 실제치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그래프는 미래예측이 무의미한 행위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논제3>은 이렇게 결정된 관점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소설을 제시하고 있다. 미래 예측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서 볼 때, (바)에서 '의사'의 섣부른 예측이 그의 대응을 결정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할 수 있다. 경솔한 예측보다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깨달음이 주제인 논술이다.

한편 이 논술을 보다 고급스럽게 만들어 최종평가에서 합격을 보장해주는 방법이 '발상의 전환'이다. 이것은 제시된 자료를 보다 면밀히 성찰하여 다른 의미 가능성을 추출하는 것으로, 남보다 한 단계 높은 사고력과 배경지식을 필요로 한다. 물론 이 능력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며, 반복의 노력이 가져오는 후천적 결실이다.

B유형의 <논제1>에서는 두 관점의 대립적 의미를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래 예측을 '가능하다/유용하다/순기능' 등 긍정적으로 해석하거나, '불가능하다/무용하다/역기능' 등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당연히 전자가 (가)를, 후자가 (나)를 독해하여 얻은 결과다.

<논제2>는 언뜻 (나)의 관점을 적용하는 문제인 듯하다. (다)의 내용이 미래예측의 불가능성 뿐만 아니라 그것의 폐해까지 예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시문(라)는 실업률의 예상치와 실제치의 심각한 괴리를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여 논박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라)의 내용은 미래예측 자체의 불가능과 무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미시적인 해석이 초래한 문제를 보여주며, 경각심과 함께 보다 치밀한 예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면? 지나친 낙관주의와 두 치 앞의 가능성을 간과한 예측에 대해 말하면서, 과학적 예측의 필요성을 말할 수 있다. 이는 그대로 (마)에도 적용된다. 예상치와 결과치가 그렇게 다른데, 왜 그렇게 무의미한 행위를 정기적으로 반복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다소의 경제학적 지식에 근거한 가설을 만들 수 있다. 실제치보다 낮은 실업률을 예상하는 것은 희망을 주어 생산성의 급격한 하락을 막으려는 의도이고, 실제치보다 높은 실업률을 예상하는 것은 긴장감을 통해 사회적 생산성이 이완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는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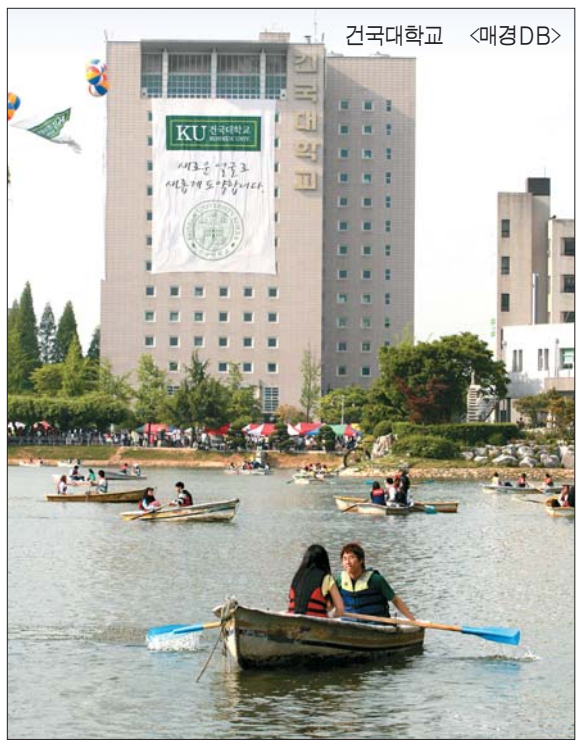
이 정도의 해석이라면 <논제3>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의사'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낙관적인 예측을, 그러나 최악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이중적인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그래야만 현재에 최선을 다하면서, 나태에 빠지지도, 운명론적 체념에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2009년 건국대 논술은 총체적인 구성의 중요성과 발상의 전환이 거시적인 의미 도출에 얼마나 중요한지 시사하는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언어강사 박상준

2009학년도 건국대 인문계 수시 논술고사 기출문제 분석

대 학	문 제	출전 및 내용	원고량
건국대	[문제1] 제시문 (가)와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일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문제2] 제시문 (가)~(다)를 참고하여, (마)의 자료에 나타난 경제 예측의 양상을 고찰하시오. (예측의 경향과 결과 등 도표에 나타난 여러 요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둘 것) [문제3] 제시문 (가)~(라)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미래관에 기초하여, 제시문 (바)의 밑줄 친 부분의 물음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의사'의 경우로부터 일반화하여 서술하시오.	-조동일 '인문 학문의 사명'(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막스 더블린 '왜곡되는 미래' -고등학교 '작문' 교과서 -알랭 '행복론' -맨큐 '거시 경제학' -양귀자 '숨은 꽃'	(501~600자) (501~600자) (901~1,100자)



건국대학교 <매경DB>

2010학년도 건국대 수시모집 전형방법(논술 중심 전형)

모집 시기	모집 인원	모집 전형	선발 모형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면접	논술	기타
수시 1차	505	논술 우수자	-	20	-	80	-

따로따로 노는 논제 하나의 주제로 통합

평소에 독서 많이해 배경지식 쌓아둬야 다양한 상상력 나와

※ 2009학년도 건국대 논술 논제는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홈페이지(edu.ingang.go.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생각 정리해 보세요